



축산연구소

산란계 강제환우 실태 및 효용성 조사 연구발표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회의실에서 산란계 강제환우 실태 및 효용성 조사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가졌다.

농협중앙회 가금수급안정위원회가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장병귀 연구사가 총괄 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장병귀 연구사는 국내 산란계 농가의 강제환우 실태 및 생산성은 물론 국외의 강제환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국내에서 채란업을 하는 97.2%가 환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성도 83.8%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 선진국의 경우 국내

에서 사용하는 절식 방법보다 비절식 방법으로 환우를 하고 있는 추세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본문 83쪽 참조)

한국축산경영학회

한·미 FTA 대응전략 심포지엄



한국축산경영학회와 축산신문은 공동주최로 지난 6월 14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기념관에서 '한·미 FTA 대응한 한국축산의 대응전략일환'이란 주제로 '2006년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심포지엄'이 축산관련단체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에서는 FTA시대와 우리농업의 대응전략과 한·미 FTA체결이 축산업(쇠고기, 양돈, 닭고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이 각각 나누어져 발표되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민국 박사가 발표한 '한국·미 FTA체결이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 전략'에서는 2006년 기준 미국산 닭다리 수입단가는 kg당 1.5\$이며, 여기에 관세와 환율을 적용하고 기타 부대비용과 업자 이윤을 고려할 때 미국산 수입 닭다리가격은 국내 가격의 40%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미국 육계 생산비용 병아리 와 사료비용은 각각 한국의 35%,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20%의 관세

가 철폐되면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은 16.7%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국내산 닭고기 시장의 가격은 7.3~12.5% 하락하고 생산은 2.3~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협상전략으로는 ▷관세감축 기간의 장기화 ▷특별긴급관세(SSG)확보 등이 제시됐으며 국내 업계대책으로는 ▷계열업체의 수급조절 능력제고 및 국제경쟁력강화 ▷국내산 닭고기의 품질향상과 출하세종의 다양화 ▷자조금 활용한 국내산 닭고기 소비홍보강화로 소비기반 확대 ▷수출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소득보전 직불제 도입의 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발표이후 토론에서는 김정주 교수(건국대학교), 최준구 회장(본회), 이재영 양계팀장(농협중앙회)에 참석했다. 토론자들은 생산비와 병아리 공급 절감의 필요성 중계DB회에 따른 수급조절 위생강화와 포장유통 방안, 국내 수급위한 토종닭 등 차별화 전략, 질병방역대책을 통한 대응책 필요성, 산란계 산업의 피해 등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가금관련단체 친선등반대회 행사



지난 24일 본회를 비롯한 가금관련단체는 현 안문제를 교류하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위해

청계산에서 가금관련단체 등반대회를 가졌다. 본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토종닭연합회, 오리협회, 계란유통협회 등 30여명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하였고, 등반대회 후 점심식사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국내 가금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였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본부, '방역위생' 정보지 고객반응 설문조사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방역위생' 정보지의 보다 신속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우편엽서를 통해 '고객반응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내용은 '방역위생'의 내용 구성 가운데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며, 정보내용과 편집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설문조사 참여 방법은 '방역위생' 정보지(6월15일자)에 수취인후납방식의 우편엽서를 직접 작성해 발송하거나 홈페이지(www.okbangyok.org)에 마련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방역본부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방역위생'에 대한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지의 내용구성 개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월드컵 특수로 치킨소비 증가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회장 윤홍근)는 한국 월드컵 대표팀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하루 평균 185만 5000마리의 치킨이 소비될 것으로 추산

했다. 이는 일일 평균 치킨 소비량(75만 마리)에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 등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날의 평균 매출 증가율(2.5배)을 곱해 산정한 수치로, 국민 25명당 1마리씩 치킨을 먹은 셈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BBQ는 13일 하루 동안 37만 5000마리의 치킨을 팔아치운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BBQ 관계자는 "먼저 대표팀 평가전의 경우에도 보통 2~3배 정도의 매출이 올랐다"며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본선 첫 경기인 만큼 최소 2.5배 이상의 매출이 오를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말했다.

치킨 업계는 이번 월드컵 기간 중 매출이 약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치킨외식산업협회 이경우 전무는 "이달 들어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2002년보다는 덜하지만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포데이터 월드컵 치킨이 최고

토고와의 월드컵 경기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 13일 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전화번호는 치킨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된 문의 전화번호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는 치킨 전문점이 1위에 올랐고, 족발, 보쌈 전문점이 그 뒤를 이어 월드컵 경기 응원자들이 응원에 앞서 야식을 주문하려고 음식점 전화번호를 가장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헝가리산 가금 수입금지 조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2월 16일 헝가리 내 사육중인 거위에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중단조치를 수입금지조치로 전환함을 알렸다. 수입금지대상 품목으로는 가금(애원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및 가금육이다.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 2006-1호, '06.1.17.)에 따른 검역제외 대상은 예외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시행장(수입식육축산물전용보관장) 대표자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지원장 박재현)은 '06.6.15(목)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전국 수입식육 물량의 80%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용인지역의 수입식육축산물전용보관장(검역시행장) 대표자와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입식육축산물전용보관장고

대표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장, 축산물 위생과장 용인출장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부터 추진 해 온『현장과 의 대화 강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 대화를 통해 검역원과 현장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로의 애로사항을 풀어 나 갈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조류질병과, 도계장 찾아 'HPAI 방역홍보 체험행사' 가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현재 국내에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없는 청정국가이며 우리나라가 계속적으로 비발생 국가로 남기위해 검역원에서 현재까지 수행해 왔던 조류인플루엔자 국가방역 및 국경검역을 현장에서 홍보하고 현장중심의 연구강화를 위해 6월 13일(목) 경기도 화성시 소재 한강CM 도계장에서 'HPAI 방역홍보 체험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에서 권준현 조류질병과장은 2003년 12월 발생했던 HPAI를 불과 4개월 만에 완전하게 근절할 수 있었던 성공요인은 신속 정확한 진단기술, 살처분정책(Stamping-out)의 추진, 철저한 차단방역, 관련업계의 헌신적인 노력 등이 잘 융합된 결과물이며, 국내 조류질병을 연구

하는 기관의 위상에 걸맞게 닭전염병 방제연구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를 박멸하고 국제기구로부터 청정국 직위를 획득한 나라는 매우 드문 예로 축산선진국들도 이런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다는 사실도 전하였다.

모든 행사 참석자들은 현장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현장연구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더욱 긴밀한 정보교환과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하절기와 장마철엔 가금티푸스나 콕시듐증의 발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계농장을 비롯한 관련업체에서는 방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적절한 소독 후 출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2006 축산환경 및 자원화 교육 심포지움 개최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는 지난 30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2006 축산환경 및 자원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축산기자재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축산기자재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효과 등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한편 동회는 축산기자재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축산기자재 홍보와 양축가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농가와, 각 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가이드북에는 축종, 기능, 관리운영시스템 품목 등을 고려하여 제작하며 각 기자재의 단가와 같은 가격집도 병행하여 발간할 예정이다.